

일 주 문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미안마 방문
지구총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월 16-23일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방문해 이라와디 주재 대사를 만나 학교건립계획을 확정했다.



법등 스님 경륜려 상임대표로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1월 15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2008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설맞이 쌀 전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화 스님은 1월 20일 복지관에서 300여 어르신에게 무료대중공양하고, 110여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쌀 2150kg을 전달했다.



대전서구노인복지센터 설 위문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관장 장국 스님은 독거어르신 및 재가 어르신 88가구에 직접 방문해 위문품과 '설맞이' 명절특식을 선물했다.



보림 스님 안산시암련 신임회장
보림선원 주지 보림 스님(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은) 1월 11일 경기 안산 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봉사
성북장애인복지관장 현관 스님은 3-11월 매주 화 오전 10시 뇌병변·지체아동을 위한 놀이활동 '친구야~나랑 놀자'를 진행한다. (02)915-9200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법사대학장 지일 스님은 2월 25일까지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20-1836



법사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 목정배 교수는 2월 28일까지 법사원불교대학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2)2254-1671



교불련 최용춘 회장 조계종 예방
전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최용춘 교수는 1월 21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기축년 교육포교 의지를 다졌다.

이전 불교전문 계간지 <불교평론>과 격월 시전문지 <유심>은 1월 20일 강남구 신사동 512-9번지 MG타워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9-5781, FAX (02)739-5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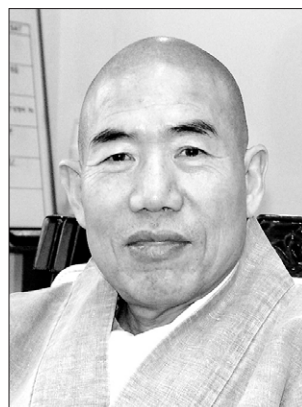
“외국인에 차별 없는 열린 시각 갖기를...”

(사)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 스님

“한국은 100만이 넘는 외국인들과 공존해 사는 다문화사회가 됐습니다.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립 4일 출범한 (사)한국다문화센터의 공동대표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대흥사회주지)이 1월 14일 선출됐다.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불교계 인사가 대표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선 스님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한국다문화센터 출범 이전부터 각별했다. 스님은 하와이 무량사에 머물 당시 한국과는 다른 미국인들의 열린 시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들은 한국에 가길 원치 않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처럼 자유롭고 편한 나라에 사는데 왜 굳이 외국인 차별이 심한 한국에 가야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반성을 느낀 스님은 사찰 차원에서 이주여성들을 모아 한글 교육도 하고, 설날 등 명절이면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는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오랜 활동 결과 외국인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다문화센터를 지원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스님은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해왔지만 다소 지엽적이었다”며 “‘포용과 관용의 열린 공동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를 전문네트워크화해 통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영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다문화센터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한국다문화센터는 특히 올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2세대들을 위해 실시하는 대학생-다문화 자녀 1:1 멘토링 서비스 프로그램과 다문화 TV프로그램 제작(IPTV 시험방송) 참여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선 스님은 “미국은 혼혈인과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으려 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조성했기 때문에 오바마 같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을 향한 차별 없는 열린 시각을 갖기를 당부했다.
이나는 기자

“내적 성장 기반 마련에 힘”

교구 출범 4주년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기축년을 맞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가 미래 군포교 발전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나섰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1월 20일 용산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교구 출범 4주년 신년기 자회견’을 열고 군종교구 핵심사업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면 스님은 “지난 2005년 7월 25일 초대 군종교구장으로서 취임한지 그것에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고 소회를 밝힌 뒤 “지난 3년동안 ‘군포교 역량강화 및

조직과 제도 활성화’에 노력했다. 남은 임기는 ‘포교성과의 사회화’와 ‘내적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종특별교구는 출범 초기 3만명 수계에서 2008년 8만7715명을 수계하는 등 군장병 불자화에 가시적 성과를 내왔다. 6억원에서 출발한 재정도 2009년에는 22억원으로 확대 편성돼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군종교구는 △군승정제성 확립 △군 불자관리 강화 △홍보



및 간행물 관리 △종무행정 체계화 △군사찰 건립 지원 △교육사업 지원 등 7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5000명 이상 수용가능한 육군훈련소 법당증축을 위해 4월말 발대식을 거행할 예정”이라며 “조계종 총무원, 교구본사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군법사 동참금, 기업체 종단 후원금, 만인동참운동 CMS후원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교육관도 2

월 말에서 3월초 기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수계 강조방침에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불자장병 수계가 증가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군 내 불교문화 정착을 위해 사관학교 포교와 초급장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겠다”며 불자지원관 관리방안도 밝혔다.
많은 계획에도 군종특별교구는 원불교의 군포교 진출·경쟁과 안정적 재정기반, 군승요원 수급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타종단 및 비구니스님 참여가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군종교구.
한국불교의 미래는 군포교에 달려 있다.
노덕현 기자

“기부문화캠페인 펼치겠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운문사 대중공양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월 17일 비구니 선원·강원이 있는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에서 기축년 대중공양을 봉행했다.

이영철 사무총장은 운문사 대중공양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정채제안 위주였지만 불자대중과 함께 기부문화캠페인 등 직접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단자정센터, 불교아카데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식구들은 운문사 문수선원 해운 스님에게 소화제 등 공양물·보시금을 전달하고, 사리암에 올라와당은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 불교이호를 다짐했다.노덕현 기자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총무원 개원식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총무원(원장 호산)은 1월 19일 전주시 인후동 총무원청사에서 총무원장 취임 및 특별교구 개원식을 개최했다. 승정원장 남파, 행정부원장 월해, 종회부의장대은 등 2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신년하례법회 봉행
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해인)는 1월 16일 서울 해인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인 스님은 “2009년은 2차 5년 계획이 시작되는 만큼 종단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기 기자



조계종, 레바논 동명부대에 격려금 전달
조계종 사회부장 세경 스님은 1월 22일 사회부장실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영우 권기원 법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4차 파병까지 군승 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기원 법사는 무사귀환을 위해 애정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부천남부서 경승법당서 신년하례법회
부천남부서는 1월 21일 서내 경승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경승실장 성인 스님을 비롯해 서장 최경성 총경과 법부회 감성수 회장 등 불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영남 법륜교수불자회 동계 수련회
영남법륜교수불자회(회장 김성구·영남대대)는 1월17-18일 전북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23명이 동참한 행사에서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대가사상을 선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부처님의 “황금색 치아진신사리” 친견대법회
부처님의 《황금색 치아진신사리》 친견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좋은 인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각 사찰의 《정초방생법회》와 《윤5월 삼사순례》에 부처님의 《황금색 치아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후 3시 이후에는 건너편 천태산의 《천진보탑》에 나타나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좌불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친견법회는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 친견기간 : 2009년 2월 7일(음력 정월 13일)부터 7월 21일(음 윤5월 29일)
■ 친견장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42번지 부처님마을금국사
■ 문의전화 : 055-338-7282, 070-7760-1411
◆ 증명대중사 : 전해인사 주지 도성 큰스님
◆ 봉행위원장 : 신도회회장 김종구
◆ 기획위원장 : 청년회회장 박주옥
◆ 홍보위원장 : 반야회회장 정자재행
◆ 운영위원 : 인등회, 지장회, 청년회, 반야회의 임원
■ 교통편 : 네비게이션 입력 “도요마을회관”
1.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삼랑진IC이용 도요진입
2.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김해에서 삼랑진 쪽으로 오면서 삼랑진 교량을 건너지 않고 생철리에서 도요 진입
※ 김해 - 삼랑진 간 4차선교량 2008년 12월 30일 개통.
1월 좋은날 부처님마을 금국사
대구 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4번지 우암사 TEL 053)792-3392, 053)794-1008 / FAX 053)794-1002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작고 큰일들을 미연에 예방하세요. 우암사에서 명심스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명심스님이 직접 인생운명을 상담 감정하여 드리며, 모든것이 잘 안되는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꿔주는 조상님의 천도재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사이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즉 해와 달, 별의 움직임, 바람과 구름의 풍용, 천둥과 지진, 화산폭발 등의 자연현상이 모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믿었으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리켜 기(氣)라고 불렀습니다. 불의의 재난을 미리 방지하며 운기를 새롭게 마음먹은대로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氣)의 힘!!!!
주역(周易)과 영(靈)의 힘을 모아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명심스님. 인생운명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자신에게 미치는 운세의 영향을 영(靈)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스님에게 감명하여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재물은 언제 오는가?
2.건강은 왜 안 좋은가?
3.부부갈등은 왜 있는가?
4.출세운은 있는가, 없는가?
5.승진시기는 언제일까?
6.무슨 직업이 맞는가?
7.결혼시기,배필은 어디에 있는가?
8.가출한 사람은 언제 귀가 하겠는가?
9.매매는 언제 되는가?
10.나는 왜 이별을 해야 하는가?
11.나는 왜 가정에 환난이 많을까?
12.하소연 할 곳이 왜 없는가?
13.나는 왜 구설수가 많을까?
14.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가?
15.나는 왜 자식이 없는가?
16.나는 왜 자식복이 없는 것일까?
17.이름은 왜 잘 지어야 하는가?
18.모터와 수백은 왜 중요한가?
19.음택이정양택감정 단산
20.모든일이 잘되지 않는 분을 위한 종합감정..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수년간 수도하여 주역의 영의 힘을 받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운명을 판단하다보니 너무나 신기한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암 사리에 운명감정실을 내어 여러분들의 걱정 재난사를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축년 이미 운명을 바꿀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운수..... 자신감을 갖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4번지 우암사 TEL 053)792-3392, 053)794-1008 / FAX 053)794-1002